

불편·불안...분통 터지는 광주 공공수영장

방학특강 선착순 현장 접수만 가능...시민들 4시간 이상 대기 짜증 타지역 온라인 예약과 대조...부실한 수질 관리·불친절도 도마에

“새벽 5시부터 대기하고 있는데, 벌써 오전 9시가 다 돼 갑니다. 시민들 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출근도 못하고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5일 새벽부터 ‘광주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은 ‘어린이 여름방학 특강(7월 29~8월 24일)’을 접수하려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매년 여름·겨울 방학시즌이면 광주지역 공공 수영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다.

우산수영장 등 광주의 공공 수영장 프로그램 참여는 현장 선착순 접수만 가능하고, 수용 인원도 한정돼 있어 이날도 학부모는 새벽 4시 무렵부터 줄을 서고 있었다. 이날 우산수영장의 공식 접수 시간은 오전 7시였다.

특히 올해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 분위기 탓인지, 어린이들 사이에 그 어느 해 보다도 수영을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는 게 학부모들의 얘기다.

여름방학기간 5개 시간대에 총 300여명을 모집하는 이날도 현장 접수에 학부모들이 몰리면서 평균 3~4시간씩을 기다린 끝에 겨우 프로그램을 접수하는 등 비효율을 적인대다 더디기만 했다.

우산수영장측은 이날 접수 번호가 적힌 A4용지에 줄을 선 차례대로 아이 이름과 희망 수강 프로그램을 적게 한 뒤, 직원이 순서대로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대기번호표를 나눠줬다. 그리고 대기표 번호대로 다시 접수를 받았다. 번호표 배부 한번이면 끝날 접수 절차를 3번이나 반복한 것이다.

이날 50번째 대기표를 받은 한 학부모는

“새벽 5시 30분에 왔는데, 9시가 다 돼서야 접수를 할 수 있었다”면서 “학부모 수백명이 새벽부터 수영장에 왔는데도, 안내하는 직원은 한명도 없고, 예매 접수와 기존 수영장 이용객 응대를 함께 하다 보니 아수라장이 됐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100번째 대기표를 받은 학부모는 “출근 시간까지 놓친 학부모들이 접수 직원들에게 좀 더 빠른 업무처리를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우산수영장의 한 직원은 온라인 예매 등을 건의하는 시민들에게 “우리도 매번 이 같은 현상이 있다 보니, 다양한 시스

템을 고민해 봤는데 그래도 현재의 시스템이 가장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효과 등으로 수영을 배우려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지만, 광주지역 공공 수영장들이 기존 낙후된 운영 방식을 고수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온라인 예약시스템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데다 부실한 수질관리와 불친절한 직원들의 업무 태도도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자치단체에서 위탁 방식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다 보니, 관리의 물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등도 부실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

주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광주남구청소년수련관, 광주동구문화센터 등 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수영장들은 프로그램 참여시 현장접수만 받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수영장에선 온라인 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지역 공공 수영장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도 단골 메뉴다. 일부 수영장은 내부 목욕탕을 관리하는 직원이 초등학생 등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 물기를 제대로 닦아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갑질을 해 불만을 사고 있다.

이달 초 리모델링을 마친 동구문화센터 수영장은 ‘유아용 풀이 더럽다’는 민원이 제기돼 온수탱크 청소 등을 했지만,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15일 오전 7시께 ‘광주북구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에서 ‘어린이 여름방학 특강’에 접수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안개속 항로 이탈하고 휴대전화까지 방전

연료마저 떨어져 표류하던 어선 극적 구조

질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해마다 연료까지 떨어진 어선이 우여곡절 끝에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50분께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서쪽 9km 해상에서 J호(1.24t) 선장 이모(62)씨가 조업을 마치고 소안도로 입항하던 중 짙은 안개 때문에 항로를 이탈했다.

휴대전화까지 방전된 이씨는 구조 요청도 하지 못하고 바다를 떠돌던 중 지나가는 선박의 도움으로 완도해경에 신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바다를 벗어나고 싶었던 이씨는 도움을 준 선박선장이 알려준 소안도 방향으로 배를 움직였고, 앞선 데 뒤틀린척으로 연료까지 떨어졌다. 이씨의 선박에는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자동

입출항신고장치(V-PASS)가 있었지만, 이날따라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 위를 표류하던 이씨는 소안도 남동쪽 8km 해상에서 V-PASS 신호가 연결되자, 구조 신호를 눌러 위기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1시간 만에 도착한 완도해경 구조정은 이날 밤 9시께 소안도 명성리항으로 이씨의 선박을 예인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국지성 안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업에 나서는 선박은 출항 전 예비 연료와 휴대전화 충전 상태 확인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폐유통 부두에 버린 선장 적발

완도해양경찰은 “선박에서 사용한 폐유통을 완도항 1부두에 버린 완도선적 1t급 어장관리선 선장 조모(72)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유통용 유기 실험제’에 따라 폐유통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적혀있는 고유 식별번호를 통해 조씨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선장은 “폐유통을 폐유와 함께 수협에 반납해야 하지만 배의 운항이 줄고 수협에 갈 일이 없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수거할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해명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전범기업, 강제징용 교섭 요청 끝내 묵살 피해자들, 미쓰비시 압류 자산 매각 추진

전범기업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달 15일까지 교섭에 나서 달라’는 최종 통첩도 끝내 묵살했다. 피해자들은 압류 자산 매각 등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해 11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피해 할머니와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미쓰비시 측에 올해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3월에는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해 같은 달 법원이 받아들인 바 있다. 압류채권액은 총 8억400여만원이다.

원고들은 지난 6월 보낸 서한에서 “7월 15일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

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무런 의사전달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이을 들어 1월 김중곤 어르신, 2월 심선에 할머니, 지난 14일 이영숙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측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내며 본격적으로 압류자산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반년이 넘도록 협의를 요청하면서 압류 강제 집행을 늦춰왔지만 미쓰비시는 최소한의 유감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대부분 90세 전후인 점을 감안해 조만간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윤희 기자 kimyh@kwangju.co.kr

망치로 유리문 황...휴대폰 7대 훔친 8명 검거

망치로 휴대전화 판매점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안경찰은 16일 “새벽시간 휴대전화 매장 유리문을 부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권모(20)씨 등 8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5명은 지난 7월 1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시 송정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해 총 4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권씨 등은 사전에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와 김모(17)군이 주변 공사장에서 훔친 망치로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휴대폰을 훔쳤으며, A(17)양 등 3명은

주변에서 망을 봤다. 이들은 보안업체가 출동하기까지 3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스톱워치 작동시간 채 1분 만에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권씨를 제외한 일당 4명은 평소 함께 어울리던 가솔 여고생 3명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확인됐다.

동감내기인 이들 7명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1일 사이 광산구 일대의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포함해 20회에 걸쳐 총 1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진 권씨와 김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9년동안 노령연금 받은 50대 징역형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9년여동안 노령연금 지급받은 50대가 징역형.

○1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종명)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노령연금 1083만6190원을 부정 수령한(국민연금법 위반 혐의) A(53)씨에 대해 징역 2개월을 선고했

다는 것.

○아버지의 노령연금 급여 통장을 관리해 오던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2008년 1월 이후에도 9년여동안 노령연금을 수령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몰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